

300-106. 신문조서(崔元澤 외 29명 치안유지법 위반) 7책 중 5

■ 피고인 30명 중 崔元澤·李周和·玄七鍾·金知宗·安基成·金奎極·朴鎮旭·金素然 등 8명을 제외한 22명의 피고인 신문조서 수록

- 서대문 형무소에서 신문하였으며 제1차 신문이었다.
- 일본인이 말하는 범죄사실, 즉 공산주의운동과 항일운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조서 7책 중의 1(문서번호 300-104)에 대략을 기술하였으므로 생략하며, 예심판사의 단독심리로 진행하고 예심종결 결정은 신문조서 7책 중의 6(문서번호 300-107)에 수록되어 있어 그 문서의 해제에서 다루고자 한다.
- 이 문서의 총분량은 1,316쪽에 이르며, 날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.
 - 1928년 4월 2일, 林啓學의 피고인 신문조서 60쪽
 - 1928년 4월 2일, 朴載廈의 피고인 신문조서 92쪽
 - 1928년 4월 4일, 張時澈의 피고인 신문조서 112쪽
 - 1928년 4월 5일, 河利煥의 피고인 신문조서 76쪽
 - 1928년 4월 5일, 朴一茂의 피고인 신문조서 54쪽
 - 1928년 4월 6일, 韓長順의 피고인 신문조서 70쪽
 - 1928년 4월 6일, 黃一甫의 피고인 신문조서 28쪽
 - 1928년 4월 6일, 李英根의 피고인 신문조서 56쪽
 - 1928년 4월 9일, 韓一의 피고인 신문조서 78쪽
 - 1928년 4월 9일, 車鍾洙의 피고인 신문조서 60쪽
 - 1928년 4월 9일, 宋山雨의 피고인 신문조서 58쪽
 - 1928년 4월 10일, 金洪桂의 피고인 신문조서 62쪽
 - 1928년 4월 10일, 方明俊의 피고인 신문조서 58쪽
 - 1928년 4월 10일, 林東元의 피고인 신문조서 58쪽
 - 1928년 4월 11일, 方薰의 피고인 신문조서 72쪽
 - 1928년 4월 11일, 李柱鳳의 피고인 신문조서 60쪽
 - 1928년 4월 11일, 鄭聖基의 피고인 신문조서 54쪽
 - 1928년 4월 12일, 鄭寅皙의 피고인 신문조서 70쪽
 - 1928년 4월 12일, 李鍾繪의 피고인 신문조서 28쪽
 - 1928년 4월 13일, 南秉錫의 피고인 신문조서 28쪽
 - 1928년 4월 13일, 陳宗琬의 피고인 신문조서 28쪽
 - 1928년 4월 13일, 金正煥의 피고인 신문조서 86쪽
- 한편, 간도총영사관으로부터 이송되었을 때에는 없었던 李鍾繪(당 40년, 본적 전남 영암군 영암면 교동리) 및 金正煥(당 22년, 본적 함남 함흥군 조양면 오로리) 등 2명은 국내에서 조사과정에 추가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.